

마을공동체 중심의 노-노(老-老) 돌봄 개발과 활용을 위한 농촌노인의 욕구 조사

박정윤·박공주*·윤순덕*·채혜선*·한은주**
중앙대학교 가족복지학과·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A Study of the Elderly's Needs for the Development of Elder Care Programs in Rural Communities

Park, Jeong Yun · Park, Gong Ju · Yoon, Soon Duck · Chae, Hye Seon · Han, Eun Joo
Depart. Family Welfare, Chung-ang Univ · Rural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NIAST, RDA
Dongjakgu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diagnosed to grasp the needs for the elderly-elderly care activity in rural areas. The research was conducted in questions and case studies in 7 farming village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s follows: First, the senior citizens in rural areas were not in good health, and the illnesses were revealed to be arthritis, high blood pressure, and diabetes. At the occurrence of an illness, they complained about the discomfort in doing daily life routines and expected their spouses or offsprings to take care of them. Elders in the rural community responded that they had difficulty and financial problems in family maintenance. Leisure activities included watching TV, playing card/board games, or spending time without any specific activities. Second, recipients of elderly-elderly care expected to receive services from a woman in her 50s 1~2 hours, once to twice a week. Third, the service providers wanted to be elderly-elderly care takers, hoping to work once a week for 2~3 hours. They wanted the education for the elderly-elderly care to be once a week for 3 hours, with understanding the elderly, consultation, preventing senile dementia, and health as the contents.

Key words: elderly-elderly care program, community, elderly's needs

I. 서론

2005년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총인구의 9.1%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

했으며 2019년에는 노인인구비가 14%인 고령사회,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령화는 도시지역에 비하여 농촌지역에서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도시 지역의 65세 이상

접수일: 2006년 10월 30일 채택일: 2006년 12월 30일

Corresponding Author: Park, Jeong Yun Tel: 017-289-4883
E-mail: pjy4838@cau.ac.kr

노인 인구비율이 2005년에 7.2%인 것에 비해 농촌지역은 그 두 배 이상인 18.6%로 이미 고령사회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6). 즉 전체 65세 이상 고령인구 중 37.1%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 노인문제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인부양의 부담이 높으며, 또한 이농현상으로 자녀세대가 거리적으로 떨어져 지내는 경우가 많아 노인 혼자 살거나 노부부만으로 구성된 노인단독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박용석 2002). 또한 농어촌 지역의 노부모 생활비 주 제공자는 도시 지역의 노부모에 비해 ‘스스로 해결한다’는 경우가 약 8.6% 더 낮았으며, ‘아들 또는 며느리가 해결한다’의 경우는 6.4%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통계청 2006) 거리적으로 자녀와 떨어져 살지만,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농촌 지역의 고령문제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가 수반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의 노인복지 및 시설 분포는 매우 불균형적이다. 농촌노인의 복지실태 조사결과, 농촌노인의 68%가 농촌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를 대다수가 경제적, 의료적, 사회적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농림부 2002). 또한 농촌노인의 70% 내외가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수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비스 혜택을 받는 지역도 매우 적었고 이러한 서비스가 있는 지역에서도 시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한해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거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화·송미영 2004). 또한 농촌노인을 위해 우선적으로 확대, 지원되어야 할 서비스 내용으로 독거노인과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며(류학수·조영수 2005), 보호 정도가 심하지 않은 농촌지역 노인을 위한 일상적 보호체계 제공 방안 역시 요구되고 있다(윤순덕 2006).

재가노인의 문제는 노인들의 경제력과 건강

정도에 관계없이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노인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사회 보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한 한 방안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87년에 정부의 지원 아래 민간법인 및 개인이 재가 노인복지를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후 2차례의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재가노인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가정봉사원 제도가 활성화 되기 시작하였으며 1991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역사회봉사센터를 설치하여 가정봉사원을 양성하고 파견하고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가정봉사원 제도는 시·군·구를 중심으로 총 228 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가정봉사원 파견이 수혜자의 욕구에 대한 분석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영역의 전문가들에 의해 서비스 욕구를 추정 결정하여 실시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가정봉사원 제도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는 생존적, 물리적 차원의 서비스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이용자 중심이 아닌 서비스 제공자의 편의에 따라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서비스가 복지선진국의 서비스를 모방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전문인력, 노인의 지역 특성에 따른 주거환경, 서비스 관심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실시되고 있어 서비스 제공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다(신은숙 2005). 이와 같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봉사원 서비스 수혜 여부가 도시지역 76.7%, 농촌지역 23.3%로, 농촌지역 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서비스 활용은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일본, 영국 등은 거리적 조건, 인구밀도에 의한 접근성, 효율성 등의 문제로 재가서비스가 발달하기 어려운 농촌 지역에 커뮤니티 차원의 자발적인 노인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고령의 노인이 고령의 노인을 부양하는 형태가 많아, 이를 노-노 케어라 칭하고 이들의 어려움을 지원, 보완할 수 있는 개호보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한 방안으로 ‘근거리 케어’라는 명칭 하에 이웃의 상부상조를 통한 노인의 정신적

안정과 더불어 긴급사태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촌은 도시지역에 비해 여전히 공동체적 유대관계가 아직도 상당히 강하게 남아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본 등의 ‘근거리 케어’ 도입 및 적용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즉 마을의 다양한 공간에서 노인들이 함께 어울리고, 노인들도 지역사회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서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마을주민의 일상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 가족이 떠난 농촌지역에서 지역사회가 노인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연구 결과 농촌지역의 공동체적 특성의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공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주장되었다(한경혜·김주현, 2005). 따라서 영국, 일본 등에서 도입하여 이용하고 있는 커뮤니티 차원의 자발적인 노인보호 체계 구축 또는 운영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은, 노노 돌봄 사업의 체계를 보다 전문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게 함으로써 지역 내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노노 돌봄 접근은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농촌지역 내 이웃의 상부상조를 통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활성화는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방안이 될 것이며 개인적으로, 일상생활 및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장애가 있는 노인들이 잔존기능을 유지·활용하면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마을 공동체 중심의 노-노(老-老) 돌봄 구축과 개발을 위하여 농촌 지역 내 고령노인의 일상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서비스 수혜 욕구 여부를 조사하였다. 또한 마을 내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휴인력인 50대 이상의 중·노년기를 대상으로 노-노(老-老) 돌봄 제도에 대한 현실적 여전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향후 이 제도에 대한 구축과 개발을 위한 근간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노-노(老-老) 돌봄의 구

체적인 계획과 실천을 마련하고자 하며, 향후 농촌노인의 일상생활능력에 맞는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

마을 공동체 중심의 노-노(老-老) 돌봄 개발과 구축을 위해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를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조사대상자는 향후 노-노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가능성이 있는 농촌 지역 내 노인이다. 이들에게는 현재의 일상생활 실태와 앞으로 돌봄 서비스 제도가 생겼을 경우 수혜를 받을 것인지 등에 관한 의견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두 번째 조사대상자는 향후 노-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50대 이상의 유휴인력이다. 이들에게는 현재 농촌노인의 문제 및 마을 내 노-노 돌봄 제도의 활용 가능성과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화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노 돌봄 서비스 수혜 대상자라 할 수 있는 농촌노인들의 기초적인 욕구조사를 위해 경기도 내 7개 마을 내 농촌생활 관계자의 도움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1 개별적 면접방식을 통한 설문조사로서 총 195명이 조사에 응하였으며, 이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농촌노인의 일반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Table 1).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노인’(39.0%)보다 ‘여자노인’(61.0%)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과반수가 ‘70대’(65.2%)였으며, 혼인상태는 ‘배우자가 있다’가 62.1%, ‘사별하였다’ 37.4%로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은 과반수가 ‘무학’(53.8%)이며, 34.9%가 ‘초등학교 졸’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건강이 좋지 않다’(52.8%)가 ‘건강하다’(25.6%)보다 더 많았으며, 종교는 ‘불교’(37.9%), ‘무교’(30.3%), ‘기독교’(20.5%)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노인 부부만 산다’가 49.7%로 가장 많아 농촌에 노인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Classification	N	%
Gender	male	76	39.0
	female	119	61.0
Age	60 ~ 69	42	21.5
	70 ~ 79	127	65.1
	over 80	26	13.3
Marital status	married	121	62.1
	separated by death	73	37.4
Education	uneducated	105	53.8
	elementary school	68	34.9
	middle school or higher	22	11.3
Health	unhealthy	103	52.8
	average	38	19.5
	healthy	50	25.6
Religion	christianity	40	20.5
	buddhism	74	37.9
	none	59	30.3
	other	21	10.8
Family type	single	23	11.8
	couple	97	49.7
	with children	69	35.4
Number of Children	less than 3	70	35.9
	4 ~ 5	95	48.7
	more than 6	28	14.4

단독가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 뒤로 '자녀와 함께 산다'가 35.4%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4-5명'(48.7%), '3명 이하'(35.9%)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유 휴인력인 50대 이상의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농촌노인의 문제점과 농촌 지역 내 마을 공동체 중심의 노-노 돌봄이 활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현실적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는 현재 농촌장수마을로 선정된 곳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총 29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하였으나 본 연구목적에 부적절한 면접 2사례를 제외하고 총 2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면접조사 대상자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하고 있는 자 또는 앞으로

노-노 돌봄 서비스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자로 한정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5) 대상자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60대' 15명, '50대' 9명, '70대' 3명 순으로 과반수 이상이 60대이다. 교육수준은 '고졸' 11명, '중졸' 7명 이었다. 가족관계는 '배우자+자녀(노부모+부부) 가족', '부부 단독가족'이 많았으며 '3세대'와 '독거노인가족'도 포함되어 있었다. 종교는 '불교'가 가장 많았으며, '기독교', '천주교', '무교'로 답하였고, 무응답이 4사례가 있었다. 농촌 거주년수를 살펴본 결과 '4년'에서부터 '69년'으로 다양하였으나, 비교적 조사대상자 대다수가 장기간 농촌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농촌노인 설정에 대한 이해가 높은 편이었다. 농촌노인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는 연구자를 포함하여 노인복지 관련 대학원생 10명으로 구성되어, 면접 전 사전 모임을 통해 교육 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6년 4월 25일부터 6월 8일까지 5주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첫째, 농촌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노-노 돌봄 서비스 수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성된 설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정환경에 대한 일반적 사항 총 8문항(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 수준, 건강상태, 종교, 가족형태, 자녀수), 이웃관계에 대한 만족도 총 16문항(자녀나 친지로부터 받는 대우와 전화에 대한 만족도 2문항, 이웃, 친구 등과의 관계만족도 14문항), 건강상태에 관한 문항 총 4문항(현재 질병상태, 질병으로 인한 어려운 점, 주수발자, 시설이용 여부), 식생활에 관한 문항 총 5문항(식사횟수, 식사규칙성, 음식준비자, 부식구입방법, 식사소요시간), 여가생활(소일거리)에 관한 문항 총 3문항(여가장소, 여가내용, 향후 하고 싶은 여가내용), 경제생활에 관한 문항 총 12문항(농지소유여부, 농사경작여부, 농사참여 형태, 농사 힘든 정도, 농사일을 계속하는 이유, 농사참여지속여부, 수입내용, 월평균소득, 평균생활비, 소비항목, 부채여부, 부채해결여부),

노-노 돌봄 수혜에 관한 요구도 총 6문항(봉사원 서비스 이용여부, 서비스 횟수, 서비스 시간, 봉사원 성별, 봉사원 연령대, 서비스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구종예(2003), 이해우(2000), 김영조(2003), 조종익(1992), 유태현(2002)의 설문 내용을 본 연구자들이 농촌노인에게 적합하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둘째, 농촌지역의 50대 이상의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노-노 돌봄에 관한 의견과 향후 봉사욕구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개방형 질문을 통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시간은 대략 20~30여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조사대상자들과의 면접내용은 녹취를 하고, 후에 이를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면접내용은 크게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농촌 노인문제와 해결방안, 자원봉사경험, 노-노 돌봄 요구도에 관한 의견으로 구성되었다.

3. 자료분석

첫째, 농촌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노-노 돌봄에 대한 욕구를 파악한 본 연구의 설문조사 자료는 SPSS/PC WIN 11.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 실태 분석을 위해서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봉사원 이용 여부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관련변인에 따라 봉사원 이용 여부가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둘째, 면접 조사한 결과는 내용분석을 통해 실시되었다.

III. 연구결과

1. 노-노(老-老) 돌봄 서비스 수혜의 욕구 파악을 위한 농촌노인 설문조사 결과

1) 농촌노인의 일반적 실태

(1) 건강과 수발실태

조사대상자의 현재 질병상태를 조사한 결과 (Table 2), 66.2%가 '신경통, 관절염, 디스크'를 경

Table 2. Conditions of health

Classification	Yes	No
Neuralgia, arthritis, HIVD (Herniated inter vertebral disc)	129 (66.2)	66 (33.8)
Arteriosclerosis, high blood pressure, heart disease, etc.	36 (18.5)	159 (81.5)
Diabetes	20 (10.3)	175 (89.7)
Gastroenteric trouble	15 (7.7)	180 (92.3)
Cataract/glaucoma	14 (7.2)	181 (92.8)
Lung disease (asthma/pneumonia, tuberculosis)	4 (2.1)	191 (97.9)
Kidney disease	3 (1.5)	192 (98.4)
Liver disease	3 (1.5)	192 (98.4)
Dermatosis	1 (.5)	194 (99.5)
Others	24 (12.3)	171 (87.7)

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뒤로 '심혈관질환(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등)'이 18.5%, '당뇨병' 10.3% 순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일상생활 수행 제한'(48.7%)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그 뒤로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11.8%)을 꼽았다 (Table 3). 그리고 현재 또는 앞으로 병이 났을 때 누구로부터 수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조

Table 3. Living state due to disease

Classification	N	%
Limitations in daily life routines	95	48.7
Financial difficulties due to medical expenses	23	11.8
Limitations in social activities	18	9.2
Loneliness, solitude	5	2.6
Difficulties due to nursing and care	3	1.5
Other	29	14.9

Table 4. Maincaregiver

Classification	N	%
Spouse	82	42.1
Son/daughter-in-law	82	42.1
Daughter/son-in-law	7	3.6
Relative	6	3.1
Neighbor/friend	1	.5
Home-helper	1	.5
Others	3	1.5
None	9	4.6

사결과(Table 4), ‘배우자’(42.1%)와 ‘아들, 딸’(42.1%)가 할 것이다 라는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가족 중심 특히 아들 중심의 부양에 대한 기대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의 과반수가 국가에서 행하고 있는 주간보호시설이나, 무료·실비 요양시설을 ‘이용하겠다’(각각 16.4%, 18.5%)고 하는 것보다 ‘이용하지 않겠다’(각각 63.1%, 55.9%)고 하는 수가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이를 통해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노인이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고자 하니, 실제 가족 특히 아들부부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농촌노인의 경우 시설복지 서비스 제공이 이들을 위한 최선의 노인복지정책이 아닐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노인을 위한 복지정책 서비스는 지역 내 자원 개발을 통해 노인이 오랫동안 거주하던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Table 5. Use of facility

Classification	Yes	No	Unsure
Day care facilities	32 (16.4)	123 (63.1)	38 (19.5)
Free or low-price facilities for the elderly	36 (18.5)	109 (55.9)	47 (24.1)

(2) 식생활 실태

조사대상자의 평상시 식사 횟수와 규칙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Table 6), 조사대상자의 92.3%가 ‘3회’를 먹고 있다고 하였으며, 과반수가 규칙

적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를 누가 준비하는지에 관한 조사결과, ‘본인’(45.1%), ‘배우자’(33.3%)라고 언급하였으며, 대체로 ‘자신들이 재배한 농작물’(66.7%)로 반찬을 해서 먹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사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질문한 결과 ‘10분~20분’(35.4%), ‘10분 이내’(26.2%)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농촌노인의 식생활은 농사를 통해 획득한 재배물이 주된 공급원이며, 주로 식사준비를 담당하는 본인과 배우자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운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에 대한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고, 결국 생존을 하기 위한 매우 기본적인 식생활이 유지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체적인 의존으로 인한 도움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도움을 제공받아야 하는 농촌노인의 복지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Table 6. Eating habits

Variable	Classification	N	%
Number of meals	1	3	1.5
	2	8	4.1
	3	180	92.3
	4	3	1.5
Meal	regular	100	51.3
	mainly regular	72	36.9
	mainly irregular	17	8.7
	irregular	6	3.1
Cooking	him/herself	88	45.1
	spouse	65	33.3
	offspring	37	19.0
	others	4	2.1
Purchasing side dishes	crops	130	66.7
	provided by offspring from the market	22	11.3
	provided by neighbor	39	20.0
	others	0	.0
	under 10 minutes	2	1.0
Meal time	10-20 minutes	51	26.2
	20-30 minutes	69	35.4
	over 30 minutes	45	23.1
	under 10 minutes	28	14.4

(3) 여가 실태

조사대상자들은 주로 시간이 났을 때 마을 내 '노인회관'(47.7%), '경로당(노인정)’(22.6%)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그러나 주로 무엇을 하는지를 조사한 결과(Table 8), 여전히 'TV 시청'(38.5%), '이야기를 나눈다'(35.9%) 순으로 나타나 농촌지역 내 노인들을 위한 여가 프로그램이 매우 빈약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생활이 있는지를 개방형으로 질문한 결과 '특별히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는 빈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금까지 농사를 하고 있는 노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자신의 여가를 위해 무엇을 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자리잡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유추해석해 볼 수 있다.

Table 7. Leisure place for spending time

Classification	N	%
A hall for senior citizens	44	22.6
Senior citizens' hall	93	47.7
Social welfare centerl	5	2.6
School for the aged	22	11.3
Neighborhood	29	14.9
Others	29	14.9

Table 8. Leisure activity

Classification	Yes	No
Talking	70 (35.9)	125 (64.1)
Watching TV	75 (38.5)	120 (61.5)
Listening to radio	6 (3.1)	189 (96.9)
Playing games	51 (26.2)	144 (73.8)
Side job	10 (5.1)	185 (94.9)
Having a meal together	10 (5.1)	185 (94.9)
Others	40 (20.5)	155 (79.5)

(4) 경제생활 실태

조사대상자의 경제 상태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Table 9과 같다. 우선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소유하고 있다'(70.8%) 가 '소유하고 있지 않다'(28.7%)보다 높은 것으로

Table 9. Economic status

Variable	Classification	N	%
Ownership of farmland	in possession	138	70.8
	not in possession	56	28.7
Farming	doing	129	66.2
	not doing	64	32.8
centered on farming one's own land		119	61.0
Form of participation	farming one's own land+others' land	5	2.6
	centered on farming others' land	9	4.6
	others	5	2.6
Degree of difficulty	very easy	7	3.6
	easy	32	16.4
	average	23	11.8
	a little arduous	45	23.1
	very arduous	37	19.0
Reason for farming	means of living, need money	47	24.1
	to use the agricultural land	43	22.1
	want to continue working	22	11.3
	to maintain health	13	6.7
	due to labor shortage	3	1.5
	others	10	5.1
Intention of farming hereafter	until 70 years old	4	2.1
	until 75 years old	9	4.6
	until 80 years old	6	3.1
	until death	102	52.3
	others	18	9.2
Main source of income	earned income	115	59.0
	assets income	10	5.1
	public transfer income	9	4.6
	personal transfer income	18	9.2
	other income	32	16.3
Income per month (thousand won)	under 300	54	27.7
	300~350	33	16.9
	500~700	35	17.9
	700~1000	20	10.3
	over 1000	48	24.6
Cost of living per month (thousand won)	under 300	65	33.3
	300~350	48	24.6
	500~700	33	16.9
	700~1000	13	6.7
	over 1000	33	16.9
Consumption	farming expenses	7	3.6
	congratulatory money	17	8.7
	living expenses	125	64.1
	medical expenses	33	16.9
	pocket Money	1	.5
	traffic expenses	4	2.1
	others	6	3.1

나타났다. 또한 과반수가 현재까지 ‘농사일을 하고 있다’(66.2%)고 하였으며, 참여형태는 ‘우리집 농사 경작 위주’(61.0%)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42.1%가 ‘농사를 짓는 것이 벅차다’고 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생계 유지, 돈이 필요해서’(24.1%)가 가장 많은 수를 보였다. 또한 과반수가 ‘농사일을 사는 날까지 계속할 것’이다(52.3%)라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주수입원이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59.0%)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본인이 움직이지 않는 한 도움을 받을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 달에 들어오는 비용은 ‘30만원 미만’(27.7%)이 가장 많았으며, 이것은 주로 ‘생활비’(64.1%)로 충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농촌노인들의 경제적 상태가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으며,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 신체적 서비스 제공을 받기가 어려움을 예측할 수 있다.

(5) 자녀(친지 포함)·이웃과의 관계

현재 자녀나 친지로부터 받는 대우나 문안전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 얼마만큼 만족하는지를 조사한 결과(Table 10), 총 5점 만점에 3.5점 이상의 점수를 보여 만족의 정도가 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세대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면서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한국 농촌의 현실에서, 노인들이 자녀 또는 친지로부터 받는 대우에 만족해 하며,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활발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관계망을 유지하는 것은 노인들의 건강한 삶의 질 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예측되고 있다(한경혜·김주현 2005). 특히 우리나라의 도시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혈연, 가족으로부터의 지원이 부족할 때 비혈연,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대체가 일어나지 않고 사회적 지지의 부재상황으로 이어진다는(황미영 1999) 점과 대비하여 볼 때 농촌지역의 긍정적인 측면을 엿볼 수 있다.

Table 10. Satisfactory level in relationship with offsprings and neighbors (relatives)

Classification	M (SD)
Satisfactory level about the treatment from offsprings and relatives	4.03 (.92)
Satisfactory level about the visits by offsprings and relatives	3.98 (.87)
Satisfactory level in relationship with neighbors	3.88 (.93)

2) 노-노 돌봄 서비스 이용에 관한 경향

(1) 노-노 돌봄 서비스 이용에 관한 일반적 경향
마을공동체 내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노인 봉사원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Table 11. Needs for home-helper

Variable	Classification	N	%
Attitude to home-helper	use	114	58.5
	not use	74	37.9
Service cycle	1 time per day	5	2.6
	2 ~ 3 times per week	24	12.3
	1 times per week	52	26.7
	2 ~ 3 times per month	18	9.2
	1 times per month	13	6.7
	others	7	3.6
Service time(hours)	under 1	9	4.6
	1 ~ 2	53	27.2
	2 ~ 3	33	16.9
Gender of home-helper	3 ~ 4	10	5.1
	4 ~ 5	4	2.1
	over 5	5	2.6
	male	6	3.1
	female	62	31.8
Age of home-helper	anything	47	24.1
	20 ~ 29	4	2.1
	30 ~ 39	11	5.6
	40 ~ 49	29	14.9
	over 50	23	11.8
Reason to refuse home-helper	anything	48	24.6
	not convenient	27	13.8
	stressful	27	13.8
	being spoken ill	6	3.1
	others	10	5.1

Table 12. Attitude to home-helpers by respondents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Use	Not use	χ^2
Gender	male	44 (62.0)	27 (38.0)	$\chi^2=0.85$
	female	70 (59.8)	47 (40.2)	
Age	60 ~ 69	23 (54.8)	19 (45.2)	$\chi^2=1.19$
	70 ~ 79	74 (61.2)	47 (38.8)	
	over 80	17 (68.0)	8 (32.0)	
Health	healthy	36 (72.0)	14 (28.0)	$\chi^2=4.43^*$
	more or less	24 (64.9)	13 (35.1)	
	unhealthy	53 (54.6)	44 (45.4)	
Marital status	married	73 (62.9)	43 (37.1)	$\chi^2=.50$
	single	41 (57.7)	30 (42.3)	
Education	uneducated	58 (57.4)	43 (42.6)	$\chi^2=1.13$
	completed elementary school	41 (63.1)	24 (36.9)	
	completed middle school or higher	15 (68.2)	7 (31.8)	
Religion	christian	21 (53.8)	18 (46.2)	$\chi^2=1.65$
	buddhism	47 (64.4)	25 (35.6)	
	nothing	35 (63.6)	20 (36.4)	
	others	11 (55.0)	9 (45.0)	
Family type	alone	18 (81.8)	4 (18.2)	$\chi^2=12.38^{***}$
	only with spouse	62 (67.4)	30 (32.6)	
	with children	31 (45.6)	37 (54.4)	
Number of offspring	under 3	40 (58.8)	28 (41.2)	$\chi^2=1.58$
	4 ~ 5	53 (58.9)	37 (41.1)	
	over 6	20 (71.4)	8 (28.6)	

* p< .05 *** p< .001

노인의 집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노 돌봄 제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1).

첫째, 조사대상자의 과반수가 그러한 돌봄 제공 서비스가 있다면 ‘봉사원을 이용하겠다’(58.5%)고 하여 ‘노-노 돌봄’ 체계가 농촌에서 적용 및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만약 이용할 의사가 있다면 봉사원이 어느 정도 방문하기를 원하는지 조사한 결과 ‘주 1회 정도’(26.7%)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봉사시간으로는 ‘1~2시간 이내’(27.2%)가 가장 많았으며, 넷째, 봉사원 성별은 ‘여자가 더 좋다’(31.8%)라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봉사원 연령은 ‘상관없다’(24.3%)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노-노 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

과, ‘현재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어서’(13.8%), ‘남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서’(13.8%)의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 내 노-노 돌봄 체계가 개발된다면 이용할 의사가 있는 농촌노인의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지역 내 여성의 주 1회 방문하여 1~2시간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져야 할 것이다.

(2)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노-노 돌봄 서비스 이용여부 차이 결과

① 일반적 특성과 노-노 돌봄 서비스 이용여부 관련성

농촌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노-노 돌봄 서비스 이용여부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Table 12, ‘건강상태’ $(X^2=4.43^*, p<.05)$, ‘가족형태’ $(X^2=12.38^{***}, p<.001)$)가 노-노 돌봄 서비스 이용여부와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건강하지 않다’고 한 조사대상자가 ‘건강하다’고 한 조사대상자보다 ‘노-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하여, 건강으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원 이용 욕구 의사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건강하다’고 한 경우 역시 봉사원을 이용하겠다는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원의 역할이 건강하지 않은 노인을 위한 케어 중심의 역할 외에도 여러 가지로 개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형태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자녀와 산다’보다 ‘혼자 산다’ 또는 ‘부부만 산다’의 경우 ‘노-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겠다’(81.8%/67.4%)가 ‘노-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18.2%/32.6%)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단독가구 형태로 거주하는 노인들의 봉사원 이용욕구 의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② 자녀와 이웃과의 관계에 따른 노-노 돌봄 서비스 이용여부의 차이

자녀로부터 받는 지지 만족도와 자녀의 방문, 문안전화에 따른 만족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만족도에 따라 노-노 돌봄 서비스 이용여부가 차이

Table 13. Attitude to home-helper by the satisfaction with neighborhood

Classification	Use	Not use	t
	M (SD)	M (SD)	
Satisfaction on the support by children(relative)	4.08 (.93)	3.98 (.92)	.77
Satisfaction on the visiting and phone from children (relative)	4.02 (.91)	3.93 (.83)	.65
Satisfaction with neighborhood	4.07 (.90)	3.65 (.91)	3.03**

** $p<.01$

가 나누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Table 13), ‘이웃과의 관계 만족도’($t=3.03^{**}, p<.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웃과의 관계 만족도가 높은 노인이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노-노 돌봄 서비스 이용 의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농촌마을의 경우 공동체적 유대관계가 상당히 강하게 남아있으며, 50~60대의 비교적 젊은 연령층의 주민들이나 90대의 초고령 노인들이 모두 섞여 일상에 관한 관심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연령 통합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경혜·김주현 2005). 본 결과를 통해 농촌지역의 공동체적 특성의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공을 위해 건강이 극히 나빠 집밖으로 거동을 잘 못하는 노인을 위해 마을 내 주민이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노 돌봄 체계를 보다 전문적으로 구축한다면 이에 대한 활용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2. 노-노(老-老) 돌봄 서비스 제공의 욕구 파악을 위한 농촌노인 면접조사 결과

1) 농촌 노인문제에 대한 일반적 경향

피면접자들에게 농촌 노인의 문제와 해결책에 대한 의견을 질문한 결과 ‘정서적 문제’, ‘일상생활의 어려움’, ‘건강 걱정과 의료시설의 부족 및 근접성문제’, ‘젊은이들의 부족으로 인한 농사일 부담’, ‘여가활동이나 소일거리의 부족’ 등을 언급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정서적 문제는 자녀가 도시로 떠나면서 독거노인의 외로움, 개인적 소일거리와 여가활동의 부족, 성격문제로 인해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해서 생기는 고독감 등이다.

“자식들이 도시에 나가고 혼자 사시는 분이 많고 그 때문에 생기는 외로움과... 중략”(사례 4)

“젊은 사람이 없어서 농사 일이 어렵고, 마땅한 소일거리가 없다. 그리고 놀거리나 문화적인 혜택이 너무 적다.” (사례 6)

“자식들이 다 떠나서 혼자 사시는 분이 많아서 외로우시다고 생각합니다.” (사례 7) (사례10)

“성격이 독선적이어서 사람들과 융합을 못하니까 외로우시죠” (사례 11)

피면접자들이 인식한 농촌노인의 건강문제는 “질병발생시 의료기관까지의 근접성”, “건강관리의 어려움”이었다. 제보자들은 노인들이 병이 생기면 병원까지 가는데 걸리는 거리나 시간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은 병원까지 나가기가 힘들어서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사례 5)

“교통편이 안 좋아서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의 경우 병원을 이용하기가 어렵다. 셔틀버스가 있으면 모셔서 병원가기도 편하고 다른 도움이 드리기 편할텐데 아쉬워요” (사례 12)

“... 병원까지 가려면 8km나 가야 하는데 너무 멀어서 불편한 것 같아요 ... ”(사례 15)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사례 18)

“노인들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평소에 측정할 수 있는 건강검진 기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많이 부족하고 건강관리의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다.” (사례 27)

이러한 문제점으로 볼 때 건강문제 지원을 위해 돌봄 수발자는 노인들이 병에 걸리면 병원까지 안전하게 이동하고 귀가하도록 하는 수발교육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 외에 농촌문제로 언급한 내용으로는 “일상생활의 어려움”, “농사일의 부담”, “복지서비스에 대한 불만” 등이었다. 피면접자들은 노인들의 가정관리에 대한 부담으로 빨래, 청소의 어려움, 식사 챙기기, 주거시설의 낙후 등을 호소하였고,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농사일이 부담되며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위에서 피면접자들이 제시한 노인문제는 자신이 농촌 노인이면서 겪는 경험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 시에 대상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주거시설이 개선되어야 하고, 식사, 청소, 빨래

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특히 영양가 없는 음식을 먹을 수 없어서 더 큰일이다. 그리고 약 챙겨 먹지 못하고 옷을 자주 갈아입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다.” (사례 14)

“무릎이 아파서 농사일을 하는데 고생한다. 늙으니까 농사일이 문제다. 그만 둘 수도 없고 그만두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소일거리할 것도 없고”(사례19)

한편 농촌 노인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피면접자 의견은 “정서적 도움제공”, “전문봉사원의 도움”을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같이 대화해 주고 놀이를 같이 한다든지, 같이 일해 주는 준다든지 옆에 있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사례 2)

“전문적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도적으로 운영시스템의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마을단체들이 협동해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사례 3)

“마을 공동체가 필요하며 공감대를 형성해서 노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사례 4)

“자주 찾아뵙고 친구가 되어주면서 필요한 부분을 알고 도움을 드려야 합니다.”(사례 5)

구체적으로 정서적 도움은 매일 말벗해 줄 사람이나 농사일이나 집안일, 여가활동 등을 함께 하는 등이 해당한다고 하였다. 또, “전문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를 언급하였다. 마을 내의 자원봉사단을 조직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자원봉사자를 위한 지원책 마련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2) 노인부양경험과 의식

피면접자들의 노부모 부양경험을 살펴본 결과 부모를 포함한 주변 노인들을 “수발한 경험이 있다”가 25사례에서 나타났으며 2사례만 “없다”고 응답하였다. 수발 경험자 중 지금까지 노부모를 수발하는 사례도 있었다. 제보자들은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시(친정)부모와 함께 동거하면서 일상 생활부양에서부터 병(암, 중풍)수발을 한 경험들이 있었다.

“막내이긴 하지만 형님들 대신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다. 어머님께서 병으로 1년 이상 병상에 있으셔서 병수발을 해 드렸는데... 후회는 없다.”
(사례 26)

“저는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형님들을 대신해서 74세(시부), 73세(시모)까지 시부모님을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병으로 1년 이상 병상에 계셔서 병수발을 했습니다.”
(사례 27)

한편 수십 년간 부모를 부양했던 제보자들은 강한 의무감과 아울러 부양의 어려움도 부분적으로 언급하였다. 전통적 가족가치관이 강한 농촌에서 병든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당연시 될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한 부양자의 스트레스나 갈등이 있을 수 있음이 응답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시어머니를 모셨는데 편찮으실 때 자녀들이 번갈아가며 모셨는데 힘들었다. 지금 생각하면 돌아가시기 전에 더 잘 모셨으면....” 하는 후회가 된다고 하였다.(사례 11)

“우리 부부는 막내인데 중풍이신 어머니를 7년간 모셨습니다. 모시는 동안은 여러 가지가 힘들었는데.....”(사례 16)

피면접자들의 노인부양의식은 “자녀부양”과 “사회부양”에 대한 의식이 혼재되어 있었다. 자녀부양을 우선적이라고 여기는 사례는 노인의 가족부양에 대한 전통적 가치가 농촌사회에 여전히 잔존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노인에 대한 의 가족부양 의식은 여전하지만 특정자녀보다는 부양 여건이 되는 자녀가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었다.

“자식이 부모부양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사례 12)

“지금은 세상이 변해서 말이가 모시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없는 사실이다. 다만 자녀의 배우자의 성격과 상황을 고려해서 자녀 중 한 명이 부모를 모시는 것은 상관없을 것이다. 본인의 현재 입장도 막내아들이 거의 모시는데 다른 아들에게 서운한 감정은 전혀 들지 않는다.”(사례 27)

한편 피면접자들은 핵가족화와 자녀들의 이농 현상으로 농촌의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가족부양 보다는 시설에 입소하여 자녀들이 돌봐주는 것도 현실적인 부양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외국처럼 어느 연령이 되면 기관에 가야 편한 여성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사례 3)

“실버타운 같은 곳을 마련해서 자녀가 부모를 모시면 좋겠다. 그것도 돈 때문에 한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렴한 비용으로 국가가 이런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사례 11)

또, 제보자들은 지역 내에서 공동체를 조직하여 노인을 부양하거나, 도우미의 도움을 받거나, 시설부양 등 다양한 형태를 제시하였으며, 특히 지역주민의 상호교류를 통한 부양을 제안함으로써 노-노 돌봄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현재 도우미 활동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한다는 의식에서 변화하여 외부 전문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자녀들이 직장생활을 해야 하고 생활유지를 하고 젊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이 부양을 해 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수도우미 교육을 받고 나니까 지금까지의 생각이 바뀌어야 할 것 같네요.”(사례 1)

“자식들이 부양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족보다는 적극적인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합니다.”(사례 2)

“주변에서 자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동네에서 사는 사람끼리 서로 돋는 것이 더 좋지요.”(사례 10)

“농촌에서는 이웃끼리 왔다갔다하면서 서로 도움이 되면 된다. 도시보다 훨씬 그런 것이 수월하다.”(사례 20)

3) 노(老)-노(老) 돌봄 서비스 구축에 대한 의견

노-노 돌봄에 대한 제공자들의 인식과 요구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몇 가지 개방형 질문을 통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노 돌봄 제도에 대한 찬반 여부를 살펴본 결과 제보자의 대부분이 제도 자체는 찬성하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노-노 돌봄을 찬성하는 응답자들은 노-노 돌봄 자원봉사활동을 이미 경험하면서 긍정적 효과를 알고 있는 입장인 경우가 많았다.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 모두가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외부인보다는 심리적으로 편안할 뿐만 아니라 근접성으로 인한 장점도 있다는 점에서 노-노 돌봄이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사례 12, 26). 또, 도움을 제공하는 젊은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여 적극적이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사례 11).

“아픈 노인에게 위안이 되고 누군가를 가다린다는 것 자체가 노인에 희망이 되고 봉사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활력이 될 것이다. 일자리 창출한다는 면에서도 좋을 것 같다.”(사례 11)

“좋다고 생각한다. 멀리 사는 사람이 노인을 도우러 오는 것보다 가까운데서 자주 돌봐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노인 공경하는 마음이 더 생길 것 같다.”(사례 12)

“누가 되었건 간에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다. 더군다나 마을 내에 사는 주변 주민이 노인을 돋는다면 항상 찾아뵐 수 있고, 가까이에서 보살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도 많이 써 줄 수 있을 것 같다.”(사례 26)

그러나 노-노 돌봄 제도에 대한 의견이 중도적

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입장은 제도의 취지나 새로운 돌봄 형태 자체에는 수용적이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즉 젊은 노인의 부족, 과다한 농사일과, 건강문제, 자원봉사 의식부족으로 인해서 제대로 노-노 돌봄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좋기는 하지만 일도 있고, 몸도 건강하지 않아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사례 7)

“마을 어르신들의 봉사정신이 부족해서 힘들 것 같습니다. 만약 할 수 있다면 더 편하고 좋기는 하겠지만....”(사례 27)

둘째, 노-노 돌봄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자원봉사 동기를 질문한 결과 개인적 동기, 경로효친 가치관으로 인해서 돌봄 활동을 하고자 한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이 부모수발이나 자원봉사 활동 경험이 있고, 노인 돌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봉사활동 동기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개인적인 동기로는 자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자신의 역할이나 존재를 확인 받고 여가시간을 보람되게 활용할 수 있는 일환으로 노인 돌봄 봉사활동을 희망하였다.

“시골에서 늙어서 할 일 없이 무료하게 있는 것보다 보람도 느끼고, 남은 시간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탬이 되는 것이 좋다. 내가 가끔 바빠서 못 갈 때는 오라고 전화를 하시기도 한다. 기다려주는 것이 보람되고 매우 기쁘다.”(사례 11)

“운동 삼아 봉사활동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 내 건강관리를 한다는 마음으로 한다. 아플 때 내 건강 유지를 위해 하고 싶다.”(사례 12)

경로효친에 대한 피면접자들의 인식은 앞에서 노인부양에 대한 태도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강한 면들이 지역 내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으로 연결되면서 노인 돌봄을 당연한 의무로 여기고 있었다.

“노인을 도와드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우리나라의 경로호친사상을 생각해보면 노인을 모시는 일은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한다.”(사례 5)

“나는 부모를 모신 경험이 있어서 어른을 모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노인을 모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사례 24)

노인수발 자원봉사자들은 개인적 경험이나 동기에서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이들 중 자원봉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활용하는 차원으로 인지하고 있어서 돌봄 제공자 교육 시에 자원봉사에 인식 전환과 자원봉사자의 자세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老-老 돌봄을 희망하는 이들이 보다 체

Table 14. Needs for the home-helper

Case	Frequency	Hour	Education hours per time	Contents
Case 1	1 time per week		-	
Case 2	1 time per week		3	leisure with the elderly
Case 3	2 times per week	3	3	volunteer, preparing the elderly
Case 4	1-2 times per week		3	leisure for the elderly, preventive senile dementia
Case 5	1 time per week	4	-	methods of communication with the elderly, healthy for the elderly
Case 6	-		-	-
Case 7	1 time per week		2 - 3	-
Case 8	flexibly		2 - 3	counseling for the elderly
Case 9	2 times per week		2	preventive senile dementia
Case 10	2-3 times per week		-	communication methods, healthy for the elderly
Case 11	3 times per week	2	1	massage treatment, understanding of the elderly
Case 12	1 time per day	4	anything	-
Case 13	3 times per week	1	1	-
Case 14	3 times per week	4	1	
Case 15	frequently		1 - 2	characteristic of the elderly, preventive senile dementia
Case 16	1-2 times per week	3-4	-	communication methods, daily life support
Case 17	2 times per week	2	-	-
Case 18	1 time per week	3	-	volunteer, elderly psychology, massage treatment
Case 19	frequently		-	-
Case 20	1 time per week	3-4	-	understand of the elderly
Case 21	1 time per week		-	
Case 22	-		-	-
Case 23	1 time per week	2	-	-
Case 24	1 time per week at leisure hour		1 - 2	elderly care, hand speak
Case 25	2 times per week		-	
Case 26	1 time per week		-	
Case 27	2 times per week	4	2 - 3	

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에 대한 욕구를 조사한 결과 봉사시간은 주 1-2회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봉사활동을 지속한 사례의 경우 주 3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회 봉사활동 시간은 1시간-4시간까지 다양하였으나 2-3시간 적당하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봉사활동의 활동시간에 대한 의견에서 몇몇 사례에서는 정기적인 서비스보다는 농번기를 피하고 비정기적으로 자신이 원할 때 부분적인 도움을 주는 방식을 취하기를 희망하였다. (Table 14 참조)

교육내용에 대한 내용으로는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상담”, “치매예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건강관리를 위한 “맛사지, 안마법, 기본간호” 등을 선호하였다. 교육시간은 평일 1-2회 정도로, 1회 교육시간은 2-3시간 정도가 적당하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老-老 돌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평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많은 응답자들이 자원봉사활동임으로 물질적이나 금전적 보상의 불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접수제(마일리지제)를 제도화하여 자신의 노후에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접수제를 만들어 내가 늙으면 그 접수를 내가 되돌려 받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봉사자에게 노인수발 봉사자에 대한 노후에 은행 접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사례 3)

“마일리지 제도와 같이 봉사시간을 적립해 주어서 차후에 본인이 봉사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사례 10)

그 외 자원봉사활동 제도 자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나 수료증 제도 도입하여 소속감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자원봉사자를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료증이나 자원봉사증과 같은 것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사례 1)

“공식기관에서 시간 인정서를 주었으면 좋겠다.”(사례 5)

또 몇몇 사례에서는 부분적이지만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실질적인 교통비 또는 적은 활동비를 받는 것이 본인의 활동을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큰 돈이 아니더라도 매월 활동비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7개월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데 10개월로 늘여서 적지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사례 11)

“많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봉사자들에게 버스요금을 할인해 준다거나 하는 혜택이 있으면 좋겠다.”(사례 12)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재가노인복지 실천의 새로운 시도 이자 농촌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서 마을 공동체 중심의 노-노 돌봄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서비스를 제공받을 가능성이 있는 노인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노인의 욕구조사를 조사하였다. 농촌은 지리적으로 도시와는 달리 복지서비스 전달에 있어 접근성의 문제로 인해서 도시의 복지체계로 접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농촌의 복지적 접근은 지역사회 내의 자원을 활용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노인문제 역시 이러한 맥락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농촌 젊은층이 도시로 나가면서 농촌에는 노인 거주비율이 높아지게 되는 실정에서 젊은이들에 의한 노인부양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편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고령이 노인인구가 농촌에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 결국 농촌의 지리적인 특수성과 노인인구의 증가를 고려한다면 외부 자원으로부터의 사회적 부양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으로 노-노 돌봄 제도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이미 서구는 노-노 돌봄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아직 까지 별다른 노-노 돌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부 농촌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시도하고자 하는 노-노 돌봄 서비스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수혜자

및 제공자의 입장에서 기초적인 욕구를 조사·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노-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선적으로 농촌노인의 생활실태에 관해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66.2%가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향후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국가에서 하는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것보다는 '배우자'와 '아들부부'에 대한 의존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와 떨어져 사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농촌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배우자' 또는 '자녀'가 수발을 하지 못할 경우 국가시설을 이용한 복지시스템보다는 지역 내 자원개발을 통해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 내 마을 공동체를 활용한 노-노 돌봄 서비스가 구축된다면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농촌노인의 경제적 실태, 여가 프로그램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상적인 식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질병이 생겼을 경우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대한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촌노인을 위한 복지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노 돌봄 서비스 이용 여부를 살펴본 결과, 건강하지 않고, 혼자 살거나 부부만 사는 경우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만족도가 높은 노인이 돌봄 서비스 이용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도시노인에 비해 자녀와의 동거율이 낮고, 비동거 자녀와도 비교적 멀리 떨어져 거주하는 경향이 높은 농촌지역의 노인들은 이웃이 일상에서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중요한 사회적 지지의 제공자일 가능성이 높다. 농사일을 공동으로 하거나 농사일에 협조를 구해야 하는 일이 많고, 이주가 잦지 않아 이웃과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왔다는 점, 또한 농촌지역에는 아직도 친성촌이 유지되는 곳이 많아 도시지역보다 노인들이 친척과 가까운 거리에서 사는 경향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농촌노인은 가족 외에도 '서로를 잘' 아는 사회

적 관계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관계들은 농촌노인들의 고독감을 낮게 하고 심리적 복지감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측 가능하다. 따라서 마을의 공통체적 특성의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공을 위해 건강이 극히 나빠 집밖으로 거동을 잘 못하는 노인 그리고 건강하지만 일상생활에 있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노-노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노-노 돌봄 서비스 수혜자가 아닌 제공자의 입장에서 조사한 결과, 농촌노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문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정서적 도움'이 제공되어져야 한다고 언급되었다. 구체적으로 정서적 도움은 매일 말벗해 줄 사람이나 농사일이나 집안일, 여가활동 등을 함께 하는 등이 해당한다고 하였으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서 "전문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마을 내에 자원봉사단을 조직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을 위한 간접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마을 내 전문 자원봉사활동 체계가 구축되고, 자원봉사자 교육 또는 지침이 마련된다면, 농촌 노인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노인 돌봄 제공자가 전문성을 갖고 활동하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 개발시 고려되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여가나 건강 문제를 돌봄 서비스를 연결하여 해결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농촌 노인 대부분은 화투, TV보기, 담소 등의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자원봉사활동 의향을 살펴본 결과 봉사받기를 선호하며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동적인 자세를 보였다. 따라서 노인의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여가영역으로 노인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 노인성 질병을 예방하는 여가활동을 개발하여 노인 돌봄자가 노인에게 공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가와 건강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효율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특히 기존의 가정봉사원 교육 프로그램은 여

가활동을 위한 교육 내용은 거의 전무할 실정이며, 건강과 여가활동을 연계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노-노 돌봄 서비스는 기존 프로그램과 차별화하고, 현재 실시되지 못한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둘째, 노-노 돌봄 프로그램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포함해야 한다. 농촌 노인이 수혜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생활자세를 갖도록 하고 자원봉사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농촌노인들이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하다는 점은 지역주민의 노-노 돌봄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긍정적으로 인식시키고 지역민들의 상호협력적 체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 셋째, 노-노 돌봄 교육 프로그램은 수혜대상자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한다. 노-노 돌봄자들은 인구구조 변화, 부양의식변화를 이해하고 노화과정에 따른 신체, 심리, 사회적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노인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노인의 특성과 대화 및 상담원리의 기본적 특성을 이해하고 접근하지 않는다면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정봉사원 양성과정은 노인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위한 교육을 배제하고 있다. 즉, 노인의 정서적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교육은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음으로 더 많은 보완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노-노 돌봄 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수혜자와 제공자가 공통적으로 지적한 점은 서비스가 노인 가구의 생활을 부분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교육과 서비스 제공시기가 개별, 지역 특성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노-노 돌봄의 필요성을 높이 인식하였지만 농촌 현실이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인 돌봄자들의 봉사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노-노 돌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농촌상황을 고려한 인력관리, 서비스 제공시기, 방법론이 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노인에게 적절하고 융통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노인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기관과의 차별화를 통하여 중복서비스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노-노 돌봄 서비스 제도의 취지나 새로운 돌봄 형태 자체에 대해서 농촌노인 대다수가 긍정적인 의견을 제공하였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즉 노인 돌봄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한계와 농촌현실과, 노인 개인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노-노 돌봄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을 보였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농촌 노인에게 자원봉사의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 유지되는 공동체적 특성을 유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체계 구축의 노력이 계속해서 행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밝혀진 서비스 제공자들의 욕구 중 자원봉사활동 추후 관리에 대해서 정부 관련부처에 정책건의를 해야 할 것이다. 즉, 노-노 돌봄 서비스 전담부서는 노인 돌봄자들에게 제공할 보상체계를 지역사회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가 노인 재가복지의 새로운 방향인 노-노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 방안기초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연구대상이 경기 및 충청지역으로 제한되었고, 제공자 욕구가 적은 수의 사례조사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노노 돌봄이라는 새로운 노인부양제도를 정착시키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 내 재가노인복지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구종예(2003). 가족부양노인과 독거노인의 가정간호 요구.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충돈(2004). 노인복지론. 학지사.
- 김선희(2002). 재가노인을 위한 자원가정봉사원 활동실태에 관한 연구 - 대구지역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중심으로 -. 대구 카톨릭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조(2003). 재가노인의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이용욕구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김 훈(2004). 전주시 지역사회의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태와 개선방안 - 가정봉사원파견센터를 중심으로 -. 한국노인복지학회. 23, 7-36.
- 농림부(2002). 농촌지역 노인복지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 류학수·조영숙(2005). 농업인 복지정책 요구도 분석.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6(2), 51-59.
- 박용석(2002). 도농복합독시 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서비스 욕구 조사연구 -경기도 파주시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은숙(2005).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정선(2002).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강서구 독거 노인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중심으로.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태현(2002). 농촌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오산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농촌노인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순덕(2006). 농촌노인의 신체적 건강과 자기부양 행동과의 관련성: 가구유형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7(1), 87-99.
- 윤재영(2002).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를 위한 가정봉사원 제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정애(2005). 노인가정봉사원교육훈련원 운용 및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정화·송미영(2004). 농촌노인의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노인생활지도마을'을 대상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5(3), 149-165.
- 이혜우(2000). 노인 부양자의 부양부담과 가족지원 및 가정봉사원 제도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종익(1992). 노인의 식생활 행동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상옥(2003). 가정봉사원파견 대상노인의 실태 및 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통계청(2006). 고령자통계.
- 통계청(2006). 사회통계조사결과(가족, 보건, 사회참여, 노동)
- 한경혜·김주현(2005). 농촌마을의 환경특성과 노인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6(1), 73-88.
- 황미영(1999). 도시 저소득층 노인의 비공식 지지망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9(2), 27-46.
- 황은혜(2002). 노인가정봉사원 활동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